

## 2021년 7월 4일 [맥추감사주일] 설교

본 문 : 전도서 12:13~14

제 목 : 경외함으로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왔는가?”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기 힘드시죠? 수학에도 공식이라는 게 있고, 과학에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을 무시하면서 수학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원리를 무시하고, 과학의 현상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입니다. 건축에도 설계도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일을 추진하려 해도, 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했다가는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안 가려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해도 5인 이상인지, 5인 이하인지, 그거 먼저 따지게 되고. 기준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준이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숫자가 기준이 되는 이상,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기준이 되고, 숫자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상황들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기준이 되는 상황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고대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수학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모두 수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군사를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런가요?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못 가진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꼭 군인을 숫자가 많아야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도 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고도의 무기들이 개발되어서 군사의 숫자는 솔직히 큰 비중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군인들의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숫자가 기준이 되는 이상, 그 전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300명의 용사로 13만 2천 명의 적군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사람과 숫자를 기준 삼았을 때, 실패했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교회도 확진자가 나왔으니 가지 말아야 한다.’, ‘5인 이상 모임도 가져서는 안 된다’, ‘2주간 격리’, ‘거리단계 3주 연장’. 그동안 우리가 친근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다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숫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혹시 이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았습니까?

둘째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느냐?** 입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노’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속 끓이는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다분히 처세적이고 체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식과 예절로는 순종했지만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기만한 위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이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에 거룩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1년 7월 11일 설교

본 문 : 누가복음 15:11~24

제 목 : 성공한 탕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공한 탕자”로 정해 보았습니다. 탕자가 결코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성공의 기준을 부의 축적이나 명예, 권세, 등등 이런 것에 둔다고 했을 때는, 명백히 탕자는 실패죠. 완전실패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의 기준을 회개**로 보았습니다. 탕자는 돌이키고 뉘우쳤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로만 뉘우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들의 지위마저도 다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 정도로 살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탕자가 위기 면피용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 아닙니다. 당장 돈이 아쉽고, 삶이 궁색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정도, 그거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가 품꾼으로 살려 한다면, 구태여 아버지 집에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딜 가더라도 품꾼으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야 하겠기에, 아버지에게 눈물로 죄를 고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이 늘 갖다 쓰시기에 합당한 막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걸레를 주목할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를 감추고 숨기게 됩니다. 단지 내 존재는 나를 다루시는 주인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젠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씻어주실 것이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뜨거운 물에 나를 집어 넣으시고, 나를 삶아주십니다. 찌든 때가 잘 빠지라고, 세제까지 풀어주시면서, 나를 삶으시면 나는 순백의 깨끗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니, 새롭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하면 깨끗이 사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회개”**로 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탕자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뻐하면 그 아들을 위해 양을 잡아 잔치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 온 거 없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께겐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빈 손 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실패의 손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받은 상처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때마다 우리를 꼬옥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떠 올리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이며, 과연 그 때 하나님을 떠 올리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떠 올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6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을 떠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주일 날이 되어야 떠 올리시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의지하시고, 의뢰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삶을 돌이켰느냐도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성공한 탕자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는 성공한 탕자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2021년 7월 18일 설교

본 문 : 열왕기상 19:19~21

제 목 : 사명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순금이 어느 순간 도금이 됩니다. 물론 기도 자체는 언제나 고귀하고 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미 내 안에 불순물이 다 끼여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순금이 어느 순간 도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고 하는 건, 이미 내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 보다, 세상 것이 더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보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순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요, 내 믿음 하나 지켜가는 게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고백들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때에 내 믿음 하나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어디서 사명을 받았는가, 일하는 일터에서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사명을 받은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나를 준비시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붙여진다면,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신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잘 변하니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한 번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아예 약속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신 우리는 성실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성실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성실”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재능이 성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좁게 보면 재능이 이겨요. 순간순간을 보고 판단한다면 재능이 이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 넓게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문의 엘리사가 그저 성실하기만 했기에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즉시 소를 다 버리고 쟁기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결단, 이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제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상, 이제 내가 가진 소유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소는 충직하지만 무척이나 고집스럽고 뿔로 들이받고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물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죠. 양도 순한 양이라고 알고들 계시지만, 양도 고약한 양이 있더라구요.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 센 양도 많아요. 이런 양은 목자도 그냥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우리 본성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들이받고 싶고, 걷어차고 싶고, 판을 다 뒤엎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악한 본성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장 기본적인 사명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헌신과 드림의 삶을 늘 실천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 2021년 7월 25일 설교

본 문 : 로마서 6:12~23

제 목 : 변화된 삶을 살라

로마서 6장 말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요,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에는 윤리적, 도덕적 죄만 죄인 줄 알았어요. 양심의 약 정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고 그 법안에서 살면 되는데, 어느새 예전처럼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코 세상의 노예가 아닌데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달콤해 보입니다.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마구 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여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제약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삼고자 하며 우리는 쉽게 거기에 말려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 노릇 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21절 22절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를 분명히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스스로 반추해 보십시오. 비포(Before), 애프터(After)가 분명한지, 혹시 그 경계를 찾아보기 힘든 건 아닌지,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이나,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내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비포, 애프터,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나, 다이어트를 한 사람만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신분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가 또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고 난 이후, 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비포, 애프터의 기준을 이제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치기 이전의 내 신앙과 세상을 다 휘감아버린 지금의 내 신앙을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애프터의 시간보다 과거 비포의 시간이 더 그리워지시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노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루이 아내는 비포가 그리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이후, 새롭게 펼쳐주실 애프터의 시간이 창창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포를 그리워하다가 소금기둥으로 삶이 마감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선포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선포하시면서, 힘 있게 살아가십시오. 결코 죄의 종노릇 할 수도 없고, 죄의 자녀가 아님을 늘 각인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 2021년 8월 1일 설교

본 문 : 창세기 32:24~28, 이사야 44:1~5

제 목 : 야곱의 3가지 이름

야곱이라는 인물은 무려 이름이 3개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여수론.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이름의 변천사를 보면서 야곱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삶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였고, 자연스럽게 어머니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더 많은 교감을 나누게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야곱은 숨기고 있는 겁니다. 형의 장자권(長子權)을 빼앗아 와야 하겠다는 야욕,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형의 권리인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 와야 하겠다는 음모. 이 야욕과 음모를 숨긴 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을 배신하면서까지 팔족과 장자권을 맞바꾸었습니다.

야곱의 행위가 비록 책망받고, 징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게 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대로 갚으셨어요. 어떻게요? 그 이후의 삶이 매우 고달프게 하셨습니다. 사기 치는 자는 사기 치는 자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고, 기만하는 자는 기만하는 자에게 기만을 당하게 하시며, 이때부터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요,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생애를 3단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사기, 기만, 탐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두 번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기 치고, 기만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온 야곱의 삶 가운데 홀로 남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 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과 방역에 철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가격리도 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겸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태껏은 탐욕으로, 기만으로, 사기치는 것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A prince of God”** 즉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도 이런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황태자”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애정과 친밀함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안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이름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한 일을 하거나 공로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 2021년 8월 8일 설교

본 문 : 창세기 50:18~21

제 목 : 대체불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대체 불가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요셉이 잘한 게 3가지입니다. 무엇을 잘했기에, 대체 불가한 하나님이 요셉을 대체 불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잘한 거 **첫 번째, 내려가기를** 잘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도단의 사막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요셉의 **첫 번째 내려가기**입니다. 물론 이 내려가기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입니다. **두 번째 내려가기**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때입니다. 이때의 내려가기는 신분의 내려가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로, 사랑을 받으며 색동옷을 입고 성장했던 요셉이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 노예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성실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감옥으로요. 이게 바로 요셉의 **세 번째 내려가기**입니다. 누명을 쓴 자리로 내려갔을 때, 요셉은 애써 변명조차 하지 않고 감옥에 내려갑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려가기를 잘하신 대표적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존귀한 그 이름 자체인 독생자 아들 예수에서, 사람의 아들로 내려가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 자체가 내려가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려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잘한 거 **두 번째, 내려놓기를** 잘했습니다. 내려가기가 순종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길이였다면 내려놓기는 요셉의 말기는 신앙입니다. 실상 우리에게요, 내려가기보다 내려놓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려가기보다 내려놓기가 더 어려워요. 우선순위를 따진다 해도, 내려놓기가 먼저예요. 내려가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내려가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려가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땅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조상 적부터 살아온 땅이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사람에게 대한 내려놓기가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내려놓기를 잘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대한 내려놓기도 잘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내려놓기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영성을 배우시려 한다면 사람에게 대한 내려놓기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존귀한 삶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잘한 거 마지막 **세 번째, 내려서기를** 잘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내려놓는 길은 하나님께 맡김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려서는 길은 사람에게 대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Understand는 ‘이해하다’의 뜻입니다. 언더(Under)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스탠드(stand)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내려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알고 이해하는 것이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가리키는 의미였다면 Understand가 아니라 Onstand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올라서는 것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설 줄 아는 것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내려섰습니다. 애굽의 총리대신의 자리에서 내려서서, 형들의 아우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한 발자국 올라가야 잘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내려서야 더 잘 보이는 자리도 있습니다. 한 발자국 올라가야 잘 보이는 자리는 육신의 자리요, 세상 안목의 자리입니다. 한 발자국 내려서야 더 잘 보이는 자리는 영혼의 자리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히 내려설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완됩니다.

## 2021년 8월 15일 설교

본 문 : 사무엘상 1:9~18

제 목 : 성숙한 기도를 위하여

정말 염려 없는 세상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와 기도를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죠. 반면에 기도는 신령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문제와 염려 가운데도 기도에 붙들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활력을 찾으며, 얼굴에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수색)이 없더라”** 이 때 당시 아직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는 지속성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여자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5분, 10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 5분, 10분 하면 할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깊게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겁니다. 단시간 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응답이 먼저이냐? 영성이 먼저이냐? 우리는 조금하기 때문에 응답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영성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속적인 영성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한나의 기도는 원통함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한나의 감정은 딱 하나예요. 격분과 원통입니다. 격하여 분노하고 있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나가 처음부터 성숙한 기도를 올렸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한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하잖습니까? 사람에게 대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을 리가 없죠. 도가 지나치면 격분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투명 인간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늘 열어놓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탄과 탄식에도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데, 설령 불편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대한 격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원통함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숙함의 기도로 바뀌는데, 서원(誓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도요, 이렇게 바뀌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항상 어린 애처럼, 투정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어리광부리는 듯한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 즉 영성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원 기도는 내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 상태, 내 마음은 통곡하면서 다 표현했기에, 이제는 내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구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뭔가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사람을 포기하든지, 물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포기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원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서원 기도는 작정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게 선물로 주시어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였고, 무엇을 작정하였고, 무엇을 내어 드렸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021년 8월 22일 [제37주년 창립기념주일] 설교

본 문 : 시편 78:1~8

제 목 : 잊지말고 기억합시다

저희 교회는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5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수두룩하지만, 그래도 37년의 세월은 충분히 추억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시간이지요. 저는 물론 이 교회에 온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이전의 시간은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는 느낄 수 있죠.

처음 삼으로 땅을 파며, 기공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맘이셨을까? 교회가 다 지어지고, 입당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 현판을 내어 다실 때에, 어떤 맘이었을까?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돌을 고르며, 벽돌을 나르고, 포장을 함께 치면서 수고하셨던 교회 개척 멤버들이 지금 이 곳에 계신다면 아마 주마등처럼, 그 모든 추억이 뇌리를 스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회가 깊으실 수 밖에 없겠죠.

신앙생활은 미래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뒤를 돌아보며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 거역이 생겨나는 것이며 기쁨과 감사, 찬송도 메마르게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소가 늘 하루 종일 먹는 줄만 알았어요. 일을 많이 하니까, 하루종일 먹느라고, 저렇게 음식을 늘 씹고 있구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저장했던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음식물의 되새김질이 아니라, 말씀의 되새김질이요. 음식의 되새김질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구요. 대신 말씀의 되새김질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상을 왜 하나요? 말씀의 되새김질을 위해 하는 거고요. 은혜의 되새김질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를 못 해서예요. 말씀을 접하지 못하니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접해도, 그 맛의 편견이 있으니, 먹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먹는 다 하더라도, 그 맛을 잘 모르기에 먹다가 뱉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변질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됨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속성과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저 후손들에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신앙으로 각성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기쁨은 영원하지만 세상 기쁨은 순간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여 기쁨이 충만해도 그 기쁨은 대략 3개월 정도면 유효기간 끝입니다. 만약 1개월 안에 차에 흠집이라도 난다면 그 때부터는 기쁨 끝 슬픔 시작입니다. 혹시 3개월이 지난 후 내가 새 차를 타고 다닌다는 기쁨으로 밤잠을 설쳐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여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왜그럴까요? 하늘 기쁨은 생각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고 언제나 사모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완전 바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탕자처럼 밥 한 끼 못 먹는 그런 처참한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규제도 많고, 제제도 많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함께 못 먹고, 점점 살림은 뻘뻘해지고. 정말 내 삶의 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지켜 주셨고, 현재에도 나를 지켜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 2021년 8월 29일 설교

본 문 : 다니엘 6:10, 19~23

제 목 : 다니엘의 영성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정말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없어 보이고, 흠 하나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과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통풍을 위함도 아니요, 햇살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환기를 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나라를 향한 마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신령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아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감독자로 왕궁에 머물게 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도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하고도 비워진 마음이 있었으니, 그건 나라를 향한 마음과 특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 이 마음을 담아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연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다니엘의 신앙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없는 행동, 중심이 서 있지 않은 행동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가인에 제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요?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외식하는 제물이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안 받으신 겁니다.

**둘째,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쩌면 이 문구가 다니엘의 영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일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죽음을 선고받은 상황과 똑같아요. 다니엘을 표적 삼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루살렘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래왔으니까, 어려운 일 닦쳤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 맞이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내 삶의 호흡과 같은 것이었기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늘 시간을 정하여 구별된 삶 가운데 기도를 올려 드린 다니엘이었기에,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기도 가운데 붙들리니, 결국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18절에서 금식까지 했다고 언급합니다. 잠자기를 마다하며, 오락까지 그치고 그날 저녁을 금식했나 봅니다. 그저 굶어버리는 ‘굶식’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본인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20절 말씀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효과입니다. 다리오 왕이 언제 한 번 기도해 보았을까요? 그가 언제 한 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조차 해 보았을까요?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1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은혜에 매여, 죽을 고비가 있다 하여도 그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실 때, 천사도 돕고 사람도 돕고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 2021년 9월 5일 설교

본 문 : 누가복음 6:6~11

제 목 :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말씀은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을 부르시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서는 거, 이걸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유를 묻는다면, 따진다든지 하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나를 부르시는 건데? 나 다리가 아파서 그냥 편히 앉아 있고 싶은데 왜 귀찮게 일어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토를 달려고 하면 토를 달고 말 안들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은혜는 건너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병자가 본문의 오른손 마른 사람,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많은 병자가 그 곳으로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목하여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나를 기다려주시기만 하실 것인가?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은혜받을만한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날만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은혜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한가운데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한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한 모퉁이에서, 한구석에서 앉아 있을 때는 그 누구 하나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가운데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로 한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남에게 주목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는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감추는 것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요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를 깨워 그 무리의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요나가 꼭 뽐혀야 할 제비뽑기를 통해 배에 탄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 요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곳까지 어떤 연유로 오게 되었는지 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난 한 가운데의 자리였지만, 그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그 바다 한가운데 준비시켜 놓으시고, 요나가 제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거늘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로 그대로 합니다. 별로 순종하기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이해하고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도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알고 나중에 이해하고 나중에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서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손, 오그라진 손 내밀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손 내미는 것 그것이 도전이요 기적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시들어졌습니까? 주님께 갖고 오십시오. 찬송의 입술이 시들고 전도의 열정이 시들어졌나요? 헌신과 사랑의 꽃, 열매, 줄기가 시들어졌나요? 말랐나요? 사탄은 우릴 시들고 오그라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펴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 2021년 9월 12일 설교

본 문 : 레위기 10:1~11

제 목 : 거룩 또 거룩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배를 올려 드리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네 아들 중 큰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취하여 분향하고 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100으로 계산할 때, 80 정도에 해당될 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만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즉 세상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 그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과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아론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 이유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의 10에 해당됩니다. 아론은요,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파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아론에게 부여졌음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광야 여정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제사장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우상을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의 가장 기본적인 규례, 곧 아들들에게 이 사명이 대물림 되어질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책임, 하나님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책임을 아론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론의 상태가 한 단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제사를 드리다가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잠잠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성통곡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냐고” 항변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은 잠잠합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한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역시 10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려고 했을 정도라면, 나답과 아비후의 삶은 포도주와 독주를 늘 마시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규례는 꼭 지켜 가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면 우리가 드러지는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구별 된 자들은 생각도 행동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 2021년 9월 19일 설교

본 문 : 룯기 1:15~22

제 목 : 내 고향 천국을 그리며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저 천국입니다. 본문에는 나 오미와 자부 룯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룯의 고향 모압에서 만났습니다. 이내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뜨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삶의 소망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이방나라의 땅까지 와서 힘겹게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겠노라고. 큰 자부 오르바는 슬퍼하며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子婦) 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이젠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머니와 나를 묶어 주셨고, 어머니를 신앙의 멘토 삼아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고백에는 지금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 버리게 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뽕스기빙데이(Thanks Giving Day)”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절기로 크게 지킵니다. 추수감사는 한 마디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절기입니다.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워 버리는 것이 추수 때에 할 일입니다. 쭉정이 기념하며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 때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즉 추석 같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외치시는 겁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 같은 유대인들은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어도 결코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즉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 주신 겁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헤매 일 때, 예수님은 나 대신 죽어 가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이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심판주가 되셔서 생명과 죽음을, 양과 염소를, 지옥과 천국을, 어둠과 광명을 엄격하게 갈라놓으실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자부 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웃음 짓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자부 룯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보아스라는 인물은 룯과 나오미를 위해 준비하신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보아스와 룯이 결혼하여 오벧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게 되죠? 다윗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우리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어서 오나라!’ 하면서 우리를 열싸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감싸주시고, 천군 천사와, 이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 구원받은 천국백성들 모두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 2021년 9월 26일 설교

**본 문 : 요한계시록 2:8~11**

**제 목 : 고난을 두려워말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본문의 10절 말씀과 같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3장 10절 말씀처럼 시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받았기에 고난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책망을 받았기에 고난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 눈 밖에서가 아니라 눈 앞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고난은 몇 가지 순서를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옵니다. 오히려 옳은 고난도 하나님의 재가가 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안 돼’라고 했다면 사탄은 옳을 절대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즉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어느새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앞으로 오셨습니다. 분명 기도 성산에서 기도하게 계실 예수님이신데, 한 밤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제자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고난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약속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우리 택함 받은 인생 조차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쥐 가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고난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딱 10일 동안만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 너무 낙심 마십시오. 미리 염려하시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종식을 선포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건 세상의 염려와 원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 이걸 내 스스로가 종식을 선포하고 절대 그 생각과 기분을 연장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스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와 분노에 대한 결별의 선포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에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다 끝나면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환란이 다 끝나면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여전히 있다 하여도, 환란이 여전히 있다 하여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받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언젠가는 끝나고, 고난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몸 된 교회를 향한 헌신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마시고, 지금의 내 상황과 아픔, 모두를 살펴보고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경주 절대 멈추지 마시고 사모하는 맘으로 더욱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